약재의 발견

설ㅇ수 속 숨은 주인공,
한약재 맥문동

피부 탄력 하면 떠오르는 대표 성분은 보통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이다. 그런데 요즘 화장품 성분표를 잘 들여다보면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띈다. 바로 맥문동이다. 설O수의 대표적인 탄력 라인에도 이 맥문동이 핵심 성분으로 들어가 있다. ‘한방 화장품’ 이미지 때문일까? 단순히 한방 화장품 이미지를 상징하는 장식용 성분이겠거니 싶지만, 알고 보면 맥문동은 피부 탄력과 보습에 꽤나 실속 있는 약재다.

맥문동, 어떤 약재일까?

맥문동(麥門冬)은 한의학에서 폐를 윤택하게 하고, 열로 인한 건조함을 가라앉히는 데 쓰인다. 쉽게 말해,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재다. 주로 기침이나 갈증, 속 건조함에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요즘엔 피부에도 효과가 좋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맥문동 추출물은 피부 보습, 진정,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다양한 화장품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표피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피부 속 단백질 합성을 도와 탄력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많다.

수분도 꽉, 장벽도 튼튼하게

맥문동에는 베타-프룩탄 같은 다당류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다. 이 성분들이 피부에 수분을 오래 머물게 해주고, 자극 반응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

한 연구에서는 맥문동 추출물이 피부 수분 손실(TEWL, Transepidermal Water Loss)을 줄이고, 피부 구조를 구성하는 단백질(클라우디닌-1, 필라그린 등)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그 덕분에 피부가 더 탄탄해지고, 예민하거나 건조한 피부에도 부드럽게 작용한다.

민감 피부도 안심

맥문동은 예민한 피부나 아토피 피부에도 괜찮은 성분이다. 프랑스의 한 연구에선 아토피 환자들이 맥문동 유래 성분을 60일간 바른 뒤 피부 가려움증, 발적 등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고되었다.

자극이 적고 진정 효과도 있어서, 요즘엔 아기 피부용 화장품이나 민감 피부 전용 제품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설O수에도, 이유가 있었다

설O수의 탄력 라인에 맥문동이 주성분으로 들어간 건 단순히 ‘한방 느낌’ 때문만은 아니다.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하고, 탄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실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화가 시작되면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수분을 잃기 쉬운데, 맥문동처럼 촉촉함을 채워주는 약재가 큰 도움이 된다.

한방에서 말하는 “진액을 보충해 폐기를 돕는다”는 말이, 지금 시대엔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맥문동처럼 오랜 시간 한약재로 사랑받아온 식물이, 현대 피부과학에서도 주목받는다는 건 반가운 일이다. 피부 속 촉촉함을 채워주고, 자극 없이 편안하게 감싸주는 맥문동의 힘은 이제 단지 전통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피부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성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화장품 속 한방 성분, 그냥 이미지용이라 생각했다면 맥문동만큼은 한 번쯤 다시 봐도 좋겠다.

맥문동은

맥문동은 원래 건조함, 기침, 속열을 다스리는 한약재랍니다.

최근에는 피부에 쓰면 보습, 진정, 장벽 강화, 탄력 개선 효과가 확인되고 있어요. 플라보노이드와 다당류 덕분에 수분을 오래 붙잡아주고, 피부 단백질 합성을 도와준대요.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이 적어 아토피, 민감성 피부용 제품에도 잘 쓰인답니다.